

'22년 항공안전 투자 규모는 4조 2,387억원

- 7월 20일 항공안전투자공시제도 시범운영('20~'22년) 후 첫 공시... 39.6% 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우리나라 항공사 등의 '22년도 안전투자 규모가 '21년(3조 364억 원)에 비해 1조 2,023억 원(39.6%) 증가한 4조 2,387억 원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항공수요가 회복세로 돌아선 작년부터 본격적인 운항 재개 준비를 위한 11개 항공사가 선제적으로 안전 투자를 확대*한 결과로써,
 - * (항목별 규모) 항공기 정비비>엔진·부품 구매비>경년항공기 교체비 순
 - 경년항공기를 교체하여 항공기 평균기령은 0.8년 개선('21년 평균 12.9년 → '22년 12.1년, △0.8년)되었고, 엔진 등 부품 추가 확보를 통해 항공기 운용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항공산업계의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년부터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도입해 시범운영해왔다.
 - 공시를 통해 항공안전과 관련된 항목별 투자액의 증감 추이가 지속적으로 관리되면서 업계는 취약 분야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안전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안전투자 규모만으로 항공사의 안전 수준을 직접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나, 항공사는 '안전'이 가장 큰 자산이며, 해당 기업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지표라는 인식 하에 각 기업의 운항량, 인력 등 규모에 걸맞은 적정 투자를 통해 그 가치를 스스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공시자료는 각 사업자의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www.airportal.go.kr)에서 7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동철 (044-201-4244)
		담당자	사무관	김형배 (044-201-4254)
			주무관	이재석 (044-201-4247)



- (도입취지)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가 적정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시스템·장비 등의 적정 투자 뒷받침 필요
 - 항공안전 증진에 직간접 영향이 인정된 투자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업체별 안전관리 의지·노력 등을 소비자가 직접 판단
 - * 기업공시 회계내역중 안전분야 항목만 추려내는 방식으로 추가 비용·인력 최소화
 - (기대효과) 제도 정착시, 항공사 신인도 제고 효과 등을 감안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안전투자 유도 기반으로 작용 기대

※ (해외 사례) 유사제도 사례는 확인되진 않았으나, 기업공시(美증권거래위) 내역을 통해 ①정비 비용+②부품구매 비용*은 제한적으로 확인 가능

☞ 주요 항공사(FSC) 매출 대비 정비·부품 투자비율 비교('21~'22년 평균, %)
- 델타 4.9, 아메리칸 6.8, 루프트한자 7.2, 에어프랑스 11.1 vs 대한 10.0, 아시아나 16.4

□ 그간 추진경과

- (근거마련) 항공안전법 제133조의2(안전투자 공시) 신설('19.11 공포)
 - *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22.11.27) 시행 ('20~'22년 시범운영)
 - 항공안전투자공시 세부기준 및 절차(국토부고시, '20.9 제정)
- (시범공시) 제도 취지·절차 이해 제고 등을 위해 시범운영('20~'22)
 - 동 제도의 조기 안착 및 자발적 안전투자 문화 확산 등을 위한 제도적 유인책, 제도상 개선필요 사항 등 발굴
- (설명회) 정식 시행전 제도 취지·절차 설명 및 의견수렴('22.1.27)
- (공시내역 접수) 공시대상 19개사* 자료 접수 완료(3.31)
 - * (제출기업 현황) 공항운영자 2, 국제·국내운송사업자 11, 소형운송사업자 6
- (내역 확인) 투자내역 제출자료 확인 및 보완(~6월말)
 - *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회계 전문가 1, 항공분야 전문가(교수 등) 3명

'22년 투자실적(총괄)

- (항공운송사업자, 11) 총 3.98조원 투자, 전년(2.73) 比 1.26조원(46.1%) 확대, 이 중 FSC는 1.01조원 ↑ (50.6%), LCC는 0.25조원 ↑ (33.9%) 증가
 - (주요 항목) 정비 비용(+0.56조원), 엔진 등 부품 구매·임차(+0.44), 경년항공기 교체* (+0.25조원) 등 항목에서 큰 폭으로 투자 확대
 - * 대한항공·진에어 각 2대, 아시아나·에어부산 각 1대 총 6대 경년항공기 교체
 - (투자효과) 경년항공기 교체를 통한 기령 개선, 예비엔진 등 부품 추가 확보를 통한 항공기 운용 안정성 제고 기대
 - (항공기) '22년 전체 20대 신규등록, 16대 말소되어, 운용 대수는 370대, 평균 기령은 '21년 12.9년에서 12.1년으로 △0.8년 낮아짐
 - * (평균 기령) 말소 항공기(16대) 20.6년 vs 신규 등록 항공기(20대) 6.1년
 - (예비 엔진) 쏘항공사가 예비로 확보중인 항공기 엔진은 '22년말 기준 151대로, 전년(134대) 대비 17대 증가(12.7%)
- (소형운송사업자, 6) 총 93억 투자, 전년(211억) 比 △117억(55.7%) 감소
 - '21년 예비항공기 도입(유아이헬리 등, 118억) 완료에 따른 기저 효과
 - * (항목별 증감) 항공기 교체 △118억, 정비비 +10억, 부품 구매 △8억, 기타 △1억
- (공항운영자, 2) 총 2,486억 투자, 전년(2,902억) 比 △416억(14.3%) 감소
 - 항행안전시설, 활주로 등 공사 연차별 투자일정에 따른 변동 요인
 - * (항목별 증감) 항행안전시설 △93억, 이착륙시설 △597억, 조업시설·장비 등 +288억

항공운송사업자 안전투자 주요 항목별 분석 (투자규모 順)

- ① (정비·수리비) 2년간('21~'22) 3.63조원('22년 2.1조, 전년 比 0.56조 ↑)
지출, '22년 항공기 대당 평균 56.6억원 지출(전년 比 15.2억 ↑)
 - 항공기 운용 규모가 큰 항공사일수록 수요 회복에 맞춰 정비비 항목의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한 경향 확인
 - * (KE) 157대 +4,082억, (OZ) 77대 +673억, (JJ) 37대, +378억, (JN) 26대 +215억
- ② (경년항공기 교체) 2년간 1.67조원 지출('22년 0.96조, 전년 比 0.25조 ↑)
 - '22년에는 4개 항공사가 6대 경년항공기 교체(신규 B737·A321 각 3대)
 - * (OZ) '22년 1.9조(△0.14), (JN) 0.3조(△0.09), (KE) 0.3조(순증), (AB) 0.2조(순증)
- ③ (엔진·부품 구매) 2년간 1.23조원('22년 0.84조, 전년 比 0.44조 ↑) 지출,
'22년 항공기 대당 평균 약 22.6억원 지출(전년 比 12.1억 ↑)
 - * 전체 항공사 예비엔진 확보율은 '22년말 18.8%로 '19년(15.7%) 比 3.1%p 증가
 - KE 64대(17.0%), OZ 43대(22.6%), JN 18대(34.6%), AB 11대(25%), JJ 11대(14.5%)

'23~'24 투자계획(총괄)

- (항공운송사업자) '23년 9.36조원 투자 계획, '22년 대비 5.38조원 (135.1%) 증가한 규모, '24년은 10.78조원 계획(전년 比 1.41조원 ↑)
 - 대부분 항목 투자확대 계획중이며, 특히, 경년항공기(+3.93조원), 정비비(+1.24조원), 예비항공기(+0.16조원) 등은 큰 폭의 확대 계획
 - * ('23년)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티웨이, ('24)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부산, 티웨이
 - 항공기 정비 비용도 항공기 도입 계획에 맞춰 지속 확대 계획
 - * '21년 1.53조원(30.4%) → '22년 2.1(36.7%) → '23년 3.33(59.1%) → '24년 3.45(35%)

참고3

안전투자 공시 대상 기업별 투자현황

(억원, %)

구분	투 자 실 적				투 자 계 획			
	'21년 (A)	'22년 (B)	증감		'23년 (C)	'24년 (D)	증감	
			B-A	%			D-C	%
총 계	30,364	42,387	12,023	39.6	97,513	111,178	13,665	14.0
항공사	27,461	39,901	12,439	45.3	93,729	107,921	14,192	15.1
국내국제운송 (FSC)	27,251	39,807	12,556	46.1	93,592	107,779	14,186	15.2
대한항공	8,785	18,413	9,627	109.6	53,295	58,456	5,161	9.7
아시아나항공	11,144	11,593	449	4.0	27,233	30,668	3,435	12.6
(LCC)	7,321	9,801	2,480	33.9	13,064	18,655	5,590	42.8
제주항공	1,195	2,247	1,052	88.0	4,020	3,240	△780	△19.4
에어부산	932	2,602	1,669	179.1	1,910	5,449	3,539	185.3
진에어	4,539	3,917	△621	△13.7	4,774	6,309	1,535	32.1
티웨이항공	323	361	38	11.8	1,177	1,346	169	14.3
에어서울	104	236	132	127.1	490	371	△119	△24.3
에어인천	50	114	63	125.7	130	182	52	39.8
에어프레미아	97	128	32	32.6	239	92	△147	△61.4
에어로케이	30	72	42	142.9	168	1,489	1,320	785.3
플라이강원	51	124	73	143.3	155	176	21	13.4
소형운송사업자	211	93	△117	△55.7	137	143	6	4.2
하이에어	30	25	△5	△16.0	27	29	1	5.4
글로벌리아항공	21	18	△3	△14.2	18	18	-	-
헬리코리아	20	20	0	1.9	22	15	△7	△31.9
엔에프에어	1	1	0	45.6	1	1	△0	△15.6
유아이헬리제트	130	15	△115	△88.7	25	40	14	56.8
더스카이	10	15	5	50.6	43	40	△3	△6.7
공항운영자	2,902	2,486	△416	△14.3	3,784	3,256	△527	△13.9
한국공항공사	800	741	△58	△7.3	1,382	1,191	△192	△13.9
인천공항공사	2,103	1,745	△358	△17.0	2,401	2,066	△336	△14.0

참고4

국내·국제운송사업자 항목별 투자 현황

(억원, %)

항목	총계			
	합계		증감	
	21년	22년	금액	비율
항목합계	27,251	39,807	12,556	46.1
① 항공기의 정비·수리·개조 ③ 정비시설·장비의 구매 및 유지 관리	15,327	20,953	5,626	36.7
② 발동기·부품 등의 구매 및 임차	3,931	8,373	4,443	113.0
④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유지관리 등	10	26	16	155.5
⑤ 항공종사자·직원의 교육훈련	578	571	△6	△1.1
⑥ 항공안전을 위한 연구개발	1	0	△1	△99.2
⑦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0	1	1	653.3
⑧ 항공안전 전산관리시스템	274	254	△20	△7.3
⑨ 기타 안전지출	25	19	△7	△25.9
⑩ 경년항공기 교체	7,105	9,609	2,504	35.3